

스포츠 종합

8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류현진

김광현

류현진, 오늘 로저스센터 데뷔전 김광현, 일정 변동으로 7일 등판

7월을 성공적으로 보낸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8월 첫 등판에 나선다.

류현진은 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리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한다. 2020시즌을 앞두고 토론토로 이적한 류현진의 정식 홈구장 데뷔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캐나다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블루제이스는 그동안 로저스센터를 홈구장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홈팬들 앞에서 '에이스'의 면모를 각인시킬 좋은 기회다. 류현진은 7월 5경기에서 3승1패, 평균자책점(BRA) 2.73의 호성적을 거뒀다. 일찌감치 시즌 10승(5패·BRA 3.26)도 달성한 만큼 4일 선발등판에선 홈팬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을 전망이다. 그에 부응하는 위력적 피칭이 뒷받침된다면 급상승하다.

최고의 성적을 내며 7월을 온전히 자신의 시간으로 만든 김광현도 8월 첫 등판에 나선다. 당초 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 선발등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팀의 마운드 운영 변화로 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나서게 됐다.

김광현은 7월 한 달간 5경기에서 4승1패, ERA 2.28로 역투했다. 이달의 투수상을 노릴 수 있는 기세였으나, 아쉽게도 7월 마지막 등판이었던 29일 클래블랜드전에서 2.2이닝 5실점으로 무너져 수상에는 실패했다. 8일의 넉넉한 재충전 시간을 부여 받은 만큼 7일 캔자스시티전에서 '다시 뛰는' 김광현의 모습을 기대해 한 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요코하마 참사’ 올림픽축구대표팀은 괜찮나?



한국축구는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멕시코에 3-6으로 저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황의조(앞)를 비롯한 선수단은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패 후 멘탈 관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무너진 멘탈, 시간이 필요해!

메달 불발…선수들 허탈감 심해
선수 복귀 K리그 구단들도 비상
대회준비 허술 KFA 충격도 여전

통산 2번째 올림픽 메달을 노렸던 한국축구는 쓸쓸하게 꿈을 접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일본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8강전에서 북중미 강호 멕시코에게 3-6 대패해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대표팀은 2일 조용히 귀국했다.

허술했던 준비 과정과 본 대회에서의 술한 실책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축구협회(KFA)도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3선에 성공한 정몽구 회장의 신임 집행부는 자신을 체제에서 치른 첫 번째 메이저 대회가 참사로 끝나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공정한 팀 구성(선발)과

철저한 관리(운영), 확실한 지원(정보·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나쁘지 않던’ 프로세스를 배제시킨 터라 이를 해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패한 올림픽에서 비롯된 고민은 KFA만의 몫이 아니다. 높은 목표를 가슴 속에 품고 올림픽 장도에 나선 선수들은 허탈감과 좌절감에 휩싸였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허무함에 더해 자신의 실력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영향도 크다. 실제로 꾸준히 제 역할을 해낸 일부를 제외하면 여기서 자유로운 이는 거의 없다.

올림픽인들의 소속 팀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선수 관리 측면이다. 이미 K리그 구단들은 올림픽을 위해 큰 화성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없이 진행된 시즌 중에도 핵심 자원들을 올림픽대표팀에 흔쾌히 내줬다.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승적 차

원’이라는 대의명분에 많은 구단들이 올림픽 선전을 바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K리그1(1부) 울산 현대, 전북 현대, 대구FC, 포항 스틸러스는 우즈베키스탄과 태국에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를 올림픽 멤버들을 제외시킨 채 소화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오매불망 선수들의 개선을 기다렸던 구단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채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선수들의 정신적인 회복이다. 도쿄올림픽 최종엔트리(22명)에 선수가 차출됐던 A구단 감독은 “결국 스스로 일어서겠지만 조금은 심신을 추스를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B구단 단장은 “귀국 후 연락이 닿은 선수의 충격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 팀으로선 몹시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할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물 찬 제비 살럿 트럼블이 2일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아티스틱 스위밍 듀엣 프리루틴 예선 도중 날아오르고 있다. 쌍둥이 자매 로라와 함께 출전한 살럿은 예선 8위로 4일 열릴 결선출전권을 따냈다. 도쿄 | AP뉴시스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2020 도쿄 올림픽 경기결과 <3일>

<오후 10시 현재>

●현재 순위=① 중국(금:32개, 은:21개, 동:16개), ② 미국(금:24개, 은:27개, 동:20개), ③ 일본(금:19개, 은:6개, 동:11개), ④ 한국(금:6개, 은:4개, 동:9개)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남자 결승=(금) 세시이(중국, 558.75점), (은) 왕종위안(중국, 534.90점), (동) 로거(영국, 518.00점), ④ 우하람(한국, 481.85점) ●3m 스프링보드 남자 준결승=① 세시이(중국, 543.45점), ② 왕종위안(중국, 540.50점), ③ 로거(영국, 514.75점), ④ 우하람(한국, 403.15점, 결승 진출)

●레슬링 ●67kg급 그레코로만형 남자 16강=엘사예드(이집트) 7-6 류한수(한국) ●67kg급 그레코로만형 남자 예선=류한수(한국) 8-0 메라베트(알제리)

●스포츠클라이밍 ●콤바인 남자 예선-스피드=① B.마텔(프랑스, 5초45), ② 나라사키(일본, 5초94), ③ M.마텔(프랑스, 5초95), ④ 천종원(한국, 6초21) ●콤바인 남자 예선-볼더링=① M.마텔(프랑스, 1.00), ② 나라사키(일본, 2.00), ③ 온드라(체코, 3.00), ④ 천종원(한국, 10.00)

●역도 ●109kg급 남자 A조=(금) 주라예프(우즈베키스탄, 430kg), (은) 마르티로시안(아르메니아, 423kg), (동) 플레시나(러시아, 410kg), ④ 천윤성(한국, 400kg)

●요트 ●2인승 댕기 470급 남자 레이스9=① 박건우, 조성민(한국, 1점), ② 벨저, 라이언(호주, 2점), ③ 달버그, 베르그스트롬(스웨덴, 3점) ●2인승 댕기 470급 남자 레이스10=① 달버그, 베르그스트롬(스웨덴, 1점), ② 페라리, 칼라브로(이탈리아, 2점), ③ 스노우 한센, 윌콕스(뉴질랜드, 3점), ④ 박건우, 조성민(한국, 9점)

●탁구 ●여자 단체 8강=독일 3-2 한국

아마추어 경기결과 <3일>

●핸들볼 ●2021 대학 핸드볼 통합리그(고원체육관) ●한체대 31-28 조선대, 경희대 26-21 원광대

프로축구 경기예고 <4일>

●K리그1 2021

울산	(울산루스)	대구
오후 7시, 스카이스포츠		
수원FC	(수원종합)	전북
오후 7시30분, JTBC G&S		
포항	(포항스틸야드)	성남
오후 7시30분, BS스�포츠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무릎이 부드럽고 이렇게 좋을수가!!
- ▶설명이 필요없다 무조건 2,3일만 착용해보면 느낀다!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생동안 많은 시간을 서서 생활하므로 체중이 아래로 집중되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특히 비만인 경우, 다리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무릎에 대사가 나빠지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체중조절이 중요하

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릎파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릎파엔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릎파엔에는 4가지 광물(켈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불만족시 무조건 반품하세요!!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릎파엔
1670-5467

휴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조이의 놀라운 성능

제품명 : 허리조이
제조/판매원 : 솔원
재원 : 길이 : 대, 중, 소
두께 : 5mm 무게 : 210g
제품용도 : 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징 : 가볍고 반영구적
손발레 가능
제조국 : Made in Korea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名作
名品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배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찜질 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

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쉰 자고나면 온몸이 가뭄해지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원적외선 찜질 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최근 허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허리조이 발열밴드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전기 없이 스스로 피부와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조이 발열밴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파장이 다양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조이 발열밴트는 4가지 광물질(켈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조이
1600-1047